

# 운기체질과 오장병증의 상관관계

## -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시아 여성 286명의 임상연구 -

진승희 · 김태희\* · 최경미\*\*

남가주 한의과대학, \*김태희 한의원, \*\*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

---

### Abstract

---

#### A Cas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 Woon Constitutions And Five Zhang Symptoms Based on 286 Clinical Data of Asian Women near L.A

Seng-hee Jin, Tae-hee Kim\*, Kyung-mee Choi\*\*

*Dept. of Diagnosis, School of Oriental Medicine,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KIMTAEHEE Asian Medical Clinic*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Hongik University at Jochiwon*

#### Objective

To relate with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ymptoms and Five Zhang(五臟)symptoms in Five Woon Constitutions and to characterize Five Woons of Asian women who live at Los Angeles area in U.S.A.

#### Methods

19 diagnostic questions were given to 286 Asian females subjects who were treated for their symptoms at an Asian medical clinic near Los Angeles in USA. The participants were given their constitutions, one of the Five Woons based on their birthdays. The Cross tabulation analysis was also applied to look for the effectiveness of Five Woons on the symptoms.

#### Results

1. The cross tabulation analysis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iveness of the Five Woons on the five symptoms including dizziness, hot and cold, lower body edema and face fever( $p<0.1$ ).
2. The dizziness and the hot and cold were related with Liver diseases, the lower body edema was related with Kidney diseases and the face fever was related to Heart diseases.

#### Conclusions

This study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ificant symptoms of Five Woons and Five Zhang(五臟)symptoms with reference which is the book by Yoon, ChoChang who lived 1700 years. Further clinical

---

\* 교신저자 : 진승희, 미국, 2334 W. Valencia Dr. Fullerton, CA 남가주 한의과대학 교수

Tel: 0011-714. 626. 0003, E-mail: dr\_jinshee@yahoo.co.kr

Received for publication Sep 15, 2010; accepted in revised form Oct 18, 2010

research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delicate questionnaires and look for ways of characterizing the Five Woons. The diagnosis and corresponding treatment based on the Five Woons should be further studied in view of the Asian medicine.

### Key words

Five Woons- Wood, Fire, Soil, Metal, Water, Crosstab, Constitution, WoonQi

## I. 緒論

運氣醫學은 五運과 六氣를 이용하여 氣候 變化를 豫測하고 그에 따른 疾病을 알아 臨床에서 疾病을 治療하도록 實用化한 方法이다. 運氣醫學은 治療 뿐만 아니라 체질적인 소인도 설명이 가능하고, 運氣體質을 알면 疾病豫防에도 效果가 있다고 하였다<sup>1</sup>.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대체의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體質을 관리하는 方法에 대한 일반인의 탐구가 높아졌다. 만성병의 치료에도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의학에서 體質은 四概念의 四象體質과 五概念의 運氣體質이 있다. 四象體質은 한의사마다 診斷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運氣體質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運과 氣를 판단하기 때문에 體質 診斷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sup>2</sup>.

運氣學說은 自然界의 天時氣候의 變化 및 그 變化가 宇宙의 萬物, 특히 人體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한 理論方法으로 陰陽五行을 핵심으로 하고 天人相應사상의 기반 위에 체계적인 學說로 定立되었다<sup>3</sup>. 黃帝內經부터 기록된 五運六氣에 대한 이론은 조금씩 발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725년 尹東里가 草窠訣을 저술하면서 運氣醫學이 시작하여 현존하는 五運六氣寶鑑에 이른다. 五運六氣寶鑑의 구성은 甲子年에서 시작하여 60년동안 해마다 10가지(五運六氣)에 이르는 특징적인 증상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運氣體質의 응용에 있어 五行의 相互作用에

따라 體質에 起因한 病과 그렇지 않은 病의 구분이 아직 모호하고, 60년동안 10가지의 五運六氣가 구분된 이론상의 전개도 아직 구체적으로 얻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臨床에서 治療效果가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研究를 해야하는 당위성은 있다<sup>2</sup>.

지금까지 이루어진 運氣醫學에 관한 研究로는 晉 등<sup>2</sup>의 연구로, 臨床에서 運氣體質의 특성을 알아보는 최초의 논문이라는데 의의가 있었고, 運氣에 관한 이론적인 研究는 金<sup>1</sup>, 李<sup>4</sup> 등이 있으며, 李<sup>5</sup>의 運氣 處方 치험례 등으로 運氣 理論과 運氣 處方을 이용한 소수의 研究 등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運氣體質의 臨床研究에 바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질병치료를 위해 미국에 위치한 00한의원을 방문한 286명의 여성 환자에게 신체계측과 問診을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을 통해 각 五運에서 나타나는 유의한 증상들과 五臟病症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결론을 얻었기에 보고한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연구대상

연구는 2006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미국 00한의원에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아시아 여성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	Range	Min.	Max.	Average	SD
Age	286	59	14	73	37.50	11.27
Height(cm)	286	31	148	179	160.75	5.25
Weight(kg)	286	83.04	38.82	111.86	63.34	10.60
BMI	286	27	13.60	40.60	24.49	3.95

Table 2. Five Woons

	Wood	Fire	Soil	Metal	Water
Number	66	55	47	66	52

286명(한국인 258명, 일본인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 분포는 만 14세부터 만 73세, 신장 분포는 148-179cm, 체중분포는 38.82-111.86kg, BMI (Body Mass Index)는 13.60-40.60(kg/m<sup>2</sup>)이었고, 남성과 13세 이하의 소이는 변수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6</sup>(Table 1).

## 2. 연구방법

### 1) 運氣體質의 판별<sup>2,7-8</sup>

실제 태어난 생일을 김 등<sup>7</sup>의 운기 조건표에 의해 運氣體質을 판별하였다<sup>2</sup>. 본 연구에서는 運氣를 모두 측정하기에는 변수가 다양하여 五運 즉, 木運, 火運, 土運, 金運, 水運을 변수로 선택하였다<sup>8</sup>. 단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運氣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태어난 여성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sup>9</sup>. 각 운기체질은 목운인이 66명, 화운인이 55명, 토운인이 47명, 금운인이 66명, 수운인이 52명이었다(Table 2).

### 2) 검사측정

#### A. 신체계측<sup>2</sup>

키는 신장계(SAKAI,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BMI는 체중(kg)/키<sup>2</sup> (m<sup>2</sup>)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 B. 체중<sup>2</sup>

체중은 임피던스 측정기(Inbody 4.0(주) Biospace, Korea)를 사용하였고, 팍 등<sup>2</sup>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C. BMI<sup>9</sup>

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 D. 問診 19 증상<sup>2,10</sup>

問診은 漢方診斷學<sup>10</sup>에 근거하여 정신상태를 Stress 정도로 파악하였고, 위장상태는 식욕의 정도와 소화상태를 질문하였고, 소변에 관해서는 소변의 이상여부를, 대변에서는 변비의 여부를, 일반 증상에 관해 수면의 정도, 두통의 정도, 眩暈의 유무, 복통&가스의 유무, 생식기 이상, 생리주기, 생리통의 정도, 瘀血의 정도, 寒熱往來의 유무, 浮腫의 유무, 下體 浮腫의 유무, 흉통, 기단 정도를 파악하였다<sup>2</sup>.

각 변수의 값은 정신상태를 알아보는 문항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는 2,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1,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는 0, 우울증 소견이 있는 경우는 -1로 두었다. 식욕(Appetite)에 관하여 입맛이 전혀 없는 경우는 -1, 보통인 경우는 0, 식욕이 좋은 경우는 1, 조절이 되는 않는 경우는 2으로 두었다.

소화상태(Digestion)를 알아보는 문진에서는 습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0, 자주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는 -1,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는 -2, 오심이 있는 경우는 1로 두었다. 소변의 이상여부를 알아보는 문진에서 이상이 없으면 0,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는 1, 尿失禁은 2, 소변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1로 두었다. 대변의 이상여부에서는 하루에 2회 이상 대변을 보는 경우는 1, 매일 보고 문제가 없는 경우는 0, 2~3일에 한번씩 대변을 보는 경우는 -1, 3일 이상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2로 두었다. 수면상태에서는 잠을 잘 들지 못하거나 깊게 못자는 경우는 -1,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는 0, 잠을 많이 쏟아지는 경우는 1로 두었다. 두통의 유무에서 이상이 없으면 0, 두통이 있으면 1, 일주일에 2~3회 이상 극심한 두통이 있으면 2로 두었다. 眩暈은 없으면 0, 있으면 1, 복통 및 가스는 복진을 통해 없으면 0, 있으면 1로 두었다. 자궁근종이나 물혹 등 생식기 이상이 없는 경우는 0, 있는 경우는 1, 자궁적출 수술을 한 경우는 2로 두었다. 생리주기에 이상이 없는 경우 0, 생리 주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1, 폐경은 2로 두었다. 생리통과 어혈 등의 증상은 없으면 0, 있으면 1, 통증이 심하거나 어혈이 많아 정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2로 두었다. 寒熱往來, 浮腫, 下體浮腫, 臃腫, 기단 혹은 소기의 경우는 증상이 없으면 0, 증상이 있으면 1로 두었다. 혈압은 아래혈압이 60-89사이 그리고 높은 혈압이 90-129까지는 0, 아래혈압이 59이하 혹은 높은 혈압이 89이하 -1, 아래혈압이 90이상 혹은 높은 혈압이 130 이상이면 0로 두었다.

### 3) 분석방법<sup>11-13</sup>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나이, 키, 五運, 혈압, 체중, BMI, 19개의 問診 결과 등이다. 통계분석은 SPSS 17.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에서는 五運(木運, 火運, 土運, 金運, 水運)과 각 증상별 오운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비교하려는 변수가 모두 명목변수일 때 분석가능하며, Pearson 카이제곱과 유의확률을 구해 유의확률이 0.1 이하인 항목에서 교차분석을 통해 증상의 답변에 응답한 五運의 수와 %, 수정잔차를 구하였다<sup>11-13</sup>. Pearson 카이제곱은 기대빈도와 실제빈도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한 통계량으로, 카이제곱이 커지면 기대치와 실제치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두 변수가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또는 오운 항목별 증상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이제곱은 유의확률 0.1이하의 항목에서 각 오운별 가장 큰값과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하는 오운을 선별하여 오운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수정된 잔차는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따르므로 수정된 잔차가 절대값 1.7 이상인 것을 특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된 잔차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유의확률이 0.1일 때 1.645로 구해져 본 연구에서는 절대값 1.7로 두었다. 단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포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표본 이용을 권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각 셀의 기대값이 5이하인 경우가 20%를 넘는 경우(rule of 5)는 추정이 어렵다고 판단한다<sup>12</sup>.

## Ⅲ. 研究結果

### 1. 五運과 症狀의 교차분석 결과

오운과 증상의 교차분석결과 피어슨의 카이제곱의 유의수준 0.1 이하에 해당되는 증상은 眩暈, 寒熱往

來, 下體浮腫, 上熱感 등이었고, 교차분석결과 五運과 증상의 답변간의 사람수와 각 五運人의 %, 수정된 잔차값(eij)을 구하였고, 이것이 1.7보다 큰 경우 ( $e_{ij} > 1.7$ )을 특징적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유의수준 0.1이하에 해당하는 수정된 잔차값은 표준 정규분포표를 통하여 1.645을 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1.7로 정하였다<sup>12</sup>.

五運과 眩暈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木運人의 경우 眩暈이 없다는 경우가 72.7%, 있는 경우가 27.3%였다. 火運人의 경우 眩暈이 없다는 경우가 85.5%, 있는 경우가 14.5%, 土運人의 경우 眩暈이 없다는 경우가 68.1%, 있는 경우가 31.9% 였다. 金運人의 경우 眩暈이 없다는 경우가 72.7%, 있는 경우가

27.3% 였다. 水運人의 경우 眩暈이 없다는 경우가 86.5%, 있는 경우가 23.1%였다.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水運人과 火運人은 眩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眩暈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土運人의 경우 眩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고, 眩暈이 나타날 경우가 많다(Table 3).

五運과 寒熱往來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木運人의 경우 寒熱往來가 없는 경우가 87.9%, 있는 경우가 12.1%였다. 火運人의 경우 寒熱往來가 없는 경우가 89.1%, 있는 경우가 10.9%, 土運人의 경우 寒熱往來가 없는 경우가 80.9%, 있는 경우가 19.1% 였다. 金運人의 경우 寒熱往來가 없는 경우가 98.5%, 있는 경우가 1.5% 였다. 水運人의 경우 寒熱往來가

Table 3. Cross Tabulation Analysis Result of Between Five Woons and Dizziness

Dizziness	Five Woons					total
	Wood	Fire	Soil	Metal	Water	
0% in 5woons)	48(72.7%)	47(85.5%)	32(68.1%)	48(72.7%)	45(86.5%)	220(76.9%)
Adjusted Residual	-0.9	1.8	-1.7	-0.9	1.9	
1% in 5woons)	18(27.3%)	8(14.5%)	15(31.9%)	18(27.3%)	7(13.5%)	66(23.1%)
Adjusted Residual	0.9	-1.8	1.7	0.9	-1.9	
Total	66(100%)	55(100%)	47(100%)	66(100%)	52(100%)	286(100%)
Pearson	Value	Df	Sig.			
Chi-Square	8.341a	12	0.080			

a.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Table 4. Cross Tabulation Analysis Result of Between Five Woons and Hot-Flash

Hot-Flash	Five Woons					total
	Wood	Fire	Soil	Metal	Water	
0% in 5woons)	58(87.9%)	49(89.1%)	38(80.9%)	65(98.5%)	46(88.5%)	256(89.5%)
Adjusted Residual	-0.5	-0.1	-2.1	2.7	-0.3	
1% in 5woons)	8(12.1%)	6(10.9%)	9(19.1%)	1(1.5%)	6(11.5%)	30(10.5%)
Adjusted Residual	0.5	0.1	2.1	-2.7	0.3	
Total	66(100%)	55(100%)	47(100%)	66(100%)	52(100%)	286(100%)
Pearson	Value	Df	Sig.			
Chi-Square	9.673a	4	0.046			

a. 1 cell (1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없는 경우가 88.5%, 있는 경우가 11.5%였다.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金運人은 寒熱往來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土運人의 경우 寒熱往來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Table 4).

五運과 下體浮腫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木運人의 경우 下體浮腫이 없는 경우가 89.4%, 있는 경우가 10.6%였다. 火運人의 경우 下體浮腫이 없는 경우가 78.2%, 있는 경우가 21.8%, 土運人의 경우 下體浮腫이 없는 경우가 95.7%, 있는 경우가 4.3% 였다. 金運人의 경우 下體浮腫이 없는 경우가 84.8%, 있는 경우가 15.2% 였다. 水運人의 경우 下體浮腫이

없는 경우가 69.2%, 있는 경우가 30.8%였다.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土運人은 下體浮腫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水運人은 下體浮腫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Table 5).

五運과 上熱感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木運人의 경우 上熱感이 없는 경우가 93.9%, 있는 경우가 6.1% 였다. 火運人의 경우 上熱感이 없는 경우가 96.4%, 있는 경우가 3.6%, 土運人의 경우 上熱感이 없는 경우가 89.4%, 있는 경우가 10.6% 였다. 金運人의 경우 上熱感이 없는 경우가 98.5%, 있는 경우가 1.5% 였다. 水運人의 경우 上熱感이 없는 경우가

Table 5. Cross Tabulation Analysis Result of Between Five Woons and Leg-Edema

Leg-Edema	Five Woons					total
	Wood	Fire	Soil	Metal	Water	
0% in 5woons)	59(89.4%)	43(78.2%)	45(95.7%)	56(84.8%)	36(69.2%)	239(83.6%)
Adjusted Residual	1.5	-1.2	2.5	0.3	-3.1	
1(% in 5woons)	7(10.6%)	12(21.8%)	2(4.3%)	10(15.2%)	16(30.8%)	47(16.4%)
Adjusted Residual	-1.5	1.2	-2.5	-0.3	3.1	
Total	66(100%)	55(100%)	47(100%)	66(100%)	52(100%)	286(100%)
Pearson Chi-Square	Value 15.730a	Df 4	Sig. 0.003			

a.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able 6. Cross Tabulation Analysis Result of Between Five Woons and Face fever

Face Fever	Five Woons					total
	Wood	Fire	Soil	Metal	Water	
0% in 5woons)	62(93.9%)	53(96.4%)	42(89.4%)	65(98.5%)	45(86.5%)	267(93.4%)
Adjusted Residual	0.2	1.0	-1.2	1.9	-2.2	
1(% in 5woons)	4(6.1%)	2(3.6%)	5(10.6%)	1(1.5%)	7(13.5%)	19(6.6%)
Adjusted Residual	-0.2	-1.0	1.2	-1.9	2.2	
Total	66(100%)	55(100%)	47(100%)	66(100%)	52(100%)	286(100%)
Pearson Chi-Square	Value 8.744a	Df 4	Sig. 0.068			

a. 2 cells (2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86.5%, 있는 경우가 13.5%였다.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金運人은 上熱感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水運人은 上熱感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Table 6).

#### IV. 考 察

運氣醫學이란 五運과 六氣를 활용하여 그 運氣에 태어난 사람의 체질과 질병을 알아내고, 예방하며 치료하는 醫學이다. 運氣醫學의 의학적 고찰에 대하여 <黃帝內經>에 이미 五運六氣로 氣候變化를 豫測하고, 그에 따른 疾病을 예측하여 매년 발생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있다<sup>1,2</sup>. 內經 이후 바뀐 내용은 없었고, <黃帝內經>에는 方劑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陳言의 <三因方>에 이르러 처음으로 처방이 제시되었다. 이 처방내용은 후대까지 그대로 쓰여졌다<sup>1</sup>.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運氣醫學은 運氣寶鑑 등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運氣處方冊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운기처방은 朝鮮時代 英祖때 尹東里가 運氣를 이용해 處方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尹東里의 저서인 草窓訣은 중국의 운기의학보다는 더 진보된 내용이 보여진다. 하지만 현존하는 運氣寶鑑과는 차이가 있다<sup>1</sup>. 현존하는 五運六氣寶鑑의 구성은 甲子年 부터 癸亥年까지 60년동안 해마다 10가지(1運1氣, 1運2氣, 2運2氣, 2運3氣, 3運3氣, 3運4氣, 4運4氣, 4運5氣, 5運5氣, 5運6氣)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증상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sup>7</sup>. 尹東里의 <草窓訣>에서 五運을 운용하는 大綱의 방법과 處方의 構成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sup>8</sup>, 五運六氣寶鑑은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運氣體質을 판별

하고, 그에 따른 증상과 처방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직 五運六氣寶鑑이 구성된 구체적인 이론이나 설명이 밝혀진 바는 없다.

運氣體質의 응용에 있어 아직 五行의 相互作用에 따라 體質에 起因한 病과 그렇지 않은 病의 구분이 아직 모호하고, 60년동안 10가지의 五運六氣가 구분된 이론상의 전개도 아직 구체적으로 얻어진 바가 없다. 단지 그러나 臨床에서 治療效果가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研究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sup>1,2</sup>.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 臨床에서 運氣體質의 특성을 알아보려는 硏 登<sup>2</sup>에 의한 연구가 있었고, 이는 運氣醫學에 관한 임상 연구로는 최초의 논문이라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외에 運氣에 관한 이론적인 研究<sup>1,4</sup>, 運氣 理論과 運氣 處方을 이용한 소수의 研究<sup>5</sup> 등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運氣體質이 임상연구에 바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五運六氣 中 五運만을 판단하여 연구에 임하였다<sup>2,8</sup>. 질병치료를 위해 미국에 위치한 00한의원을 방문한 여성 환자에게 生年月日을 정확히 확인하고, 运气조건표<sup>7</sup>는 한국시간에 맞추어진 것이므로 한국시간과 동일한 곳에 태어난 한국인, 일본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五運을 판단하였다. 신체계측과 체중을 측정하고, 問診을 실시하였다.

五運人과 신체적인 특징과의 관계에서는 土運人이 다른 체질에 비해 체중과 BMI의 평균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얻었고, 이는 지난번 硏 登<sup>2</sup>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五運과 19개 문진의 비교 분석에서는 五運도 명목 변수이고, 19개 문진의 결과도 명목변수이므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sup>11-13</sup>. 19개 문진은 診斷學에서 제시한 기본이 되는 증상만을 구하였다<sup>2,10</sup>. <素問. 運

氣七篇>에서는 五運六氣 別로 자연의 기후변화에 따른 증상이 제시되어 있고, <運氣寶鑑><五運六氣寶鑑>에서는 각 五運六氣 別 증상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근본을 찾지 못하였다<sup>7</sup>. 본 연구에서는 일반 증상에서 五運체질 別로 특징이 구분 지어 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黃帝內經>의 五臟病症과 비교하여 보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수준(p<0.1)에 해당하는 증상은 五運 別로 문진의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11-13</sup>.

교차분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의수준 0.1이하에서 그리고 기대값이 20% 이하에서 眩暈, 寒熱往來, 下體浮腫, 上熱感 등이 五運體質 別로 問診의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五運과 각 증상간의 관계가 특별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정된 잔차를 구하였다. 교차분석에서 잔차란 실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잔차가 /1.7/보다 큰 곳을 특징적인 곳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p<0.1)<sup>11-13</sup>. 분석결과 오운의 체질에 따라 유의하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과 적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五運體質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五運體質 別로 유의한 차이가 있던 症狀를 五臟病症에서 어느 장부의 병증에 속하는 가를 알아 보았다. 五臟病症에 대하여 <素問 標本病傳論><sup>14</sup>에 의하면 “心病先心痛, 肺病喘欬, 肝病頭目眩脇支滿, 脾病身痛體重, 腎病少腹腰脊痛, 筋痠, 胃病脹滿, 膀胱病小便閉, …故肺病者喘息鼻張, 肝病者皆青, 脾病者唇黃, 心病者舌卷短, 顴赤, 腎病者顴與顏黑” 으로 기록하였다.

유의한 증상 중 眩暈은 肝病의 頭目眩과 연결지어 肝病으로 보았고, 上熱感은 心病의 顴赤과 연결지어 心病으로 보았다. 下體浮腫은 <素問><sup>15</sup> “水病

腰以下腫者 水性就 下之象也.”라 하였고, <素問 臟氣法時論><sup>15</sup>에 “腎病, …, 脛腫”이라 하여 下體浮腫은 腎病이라 보았다. 寒熱往來는 高<sup>16</sup>에 의하면 肝病이라 하였으므로 肝病으로 보았다.

유의한 네가지 증상에서 五運의 체질에 따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草窓訣>의 運氣衍論<sup>8</sup>으로 五臟病症을 설명을 하였다. 그 결과 運氣體質과 五臟病症과의 聯關된 關係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五運의 體質에 따라 五臟의 病症에서 많이 나타나는 症狀와 적게 나타나는 症狀가 있었다.

眩暈과 오운을 교차분석한 결과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水運인과 火運인은 眩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眩暈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土運인의 경우 眩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고, 眩暈이 나타날 경우가 많다. 土運에서 眩暈이 나타날 경우에 대해 <草窓訣>의 運氣衍論<sup>8</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庚丁生人 遇甲辛年 甲辛生人 遇庚丁年而病者 庚丁之木血不足 甲辛之腎水不及 腎不能生木 則肝腎之血液虛損 頭風眼疾耳鳴腰痛其症也” 이라 하여 庚丁生인이 甲辛年을 만나거나 甲辛生인이 庚丁年을 만나 病이 되면 庚丁은 金太過하여 木血이 不足하고 甲辛年은 土太過하여 腎水가 不及하여 水가 木을 生할 수 없어 肝腎의 혈액이 虛損하게 되어 頭風, 眼疾, 耳鳴, 腰痛 등의 肝木의 症狀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土運인은 土가 病의 原因이 되는데 甲辛年生 역시 土太過하여 水不及이 되니 水不能生木으로 木에서 病이 나므로 土運인에서 肝病의 眩暈이 일어날 경우가 많다.

寒熱往來와 五運을 교차분석한 결과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金運인은 寒熱往來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土運인의 경우 寒熱往來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고, 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 土運人에서 寒熱往來가 나타날 경우에 대해 <草窓訣>의 運氣衍論<sup>8</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辛生人遇壬己年而病者…脾腎之稟賦強實而不受傷 木氣自鬱而有熱者”라 하였다. 土運人, 土太過에서 木太過를 만나 木克土를 당해야하는데 脾腎이 평소에 實하여 損傷을 받지 않으면 木氣가 스스로 鬱滯되어 肝病의 寒熱往來가 일어날 경우가 많다.

下體浮腫과 五運을 교차분석한 결과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土運人은 下體浮腫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水運人은 下體浮腫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水運人에서 下體浮腫이 나타날 경우에 대해 <草窓訣>의 運氣衍論<sup>8</sup>을 살펴보면 “腎水稟賦虛弱 或用之過度 而水獨虛”라 하였다. 腎水가 원래 허약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水가 홀로 虛하면 腎病의 下體浮腫이 나타날 경우가 많다.

上熱感과 五運을 교차분석한 결과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金運人은 上熱感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水運人은 上熱感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水運人에서 上熱感이 나타날 경우에 대해 <草窓訣>의 運氣衍論<sup>8</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丙癸生人 遇丙癸年而 病者 丙癸水克火 火不肯水克 故水與火交攻於心小腸之間 比如冰炭之填塞者也 其症上熱目赤手足掌熱 腹脹小水短赤”이라 하여 水運人은 水克火하여 病이 되는데, 丙年人이 丙癸年을 만나 病이 되면 水克火하니 그 症狀은 上熱, 目赤, 手足掌熱 등의 症狀이 나타나므로 水運人에서 心病의 上熱感이 일어날 경우가 많다.

五運體質에서 體質別 유의한 症狀을 五臟病症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던 중 <草窓訣>

의 運氣衍論에서 말한 병리 기전으로 설명이 되었다. 그러나 자료수집에서 증상이 나타난 빈도수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빈도수에 비해 비율이 적어 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차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五臟病症의 自病과 傳病過程은 運氣辨證과는 다른 전개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五運體質과 五臟病症과의 관계를 찾아 보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차후 五運體質의 특성을 찾아내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자료로 보여진다. 향후 五運體質의 특성에 관한 계속적인 임상연구는 運氣醫學에서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運氣處方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運氣는 辨證과 診斷 및 處方까지 연결된 포괄적인 체계를 이룬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14</sup>. 실제 임상에서 만성질환, 고질병을 치료함에 효과를 보고 있는 運氣處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에 근간을 둔 五運六氣를 미국 등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運氣醫學이 단순히 동북아 지역에만 국한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結 論

본 연구에서는 運氣體質의 臨床研究에 바탕이 될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질병치료를 위해 미국에 위치한 00한의원을 방문한 286명의 여성 환자에게 신체계측과 問診을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을

통해 각 五運에서 나타나는 유의한 症狀들과 五臟病 症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결론을 얻었다.

1. 五運과 19개 문진을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1이하에서 眩暈, 寒熱往來, 下體浮腫, 上熱感 등의 症狀 등이 五運 別로 問診의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
2. 眩暈을 五運과 교차분석한 결과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水運인과 火運人에서는 眩暈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고, 土運人은 나타날 경우가 많다( $p < 0.1$ ).
3. 寒熱往來를 五運과 교차분석한 결과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金運人은 寒熱往來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고, 土運人은 나타날 경우가 많다( $p < 0.1$ ).
4. 下體浮腫을 五運과 교차분석한 결과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土運人은 下體浮腫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고, 水運人은 나타날 경우가 많다( $p < 0.1$ ).
5. 上熱感を 五運과 교차분석한 결과 수정된 잔차값을 비교하였을 때 金運人은 上熱感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고, 水運人은 나타날 경우가 많다( $p < 0.1$ ).

본 연구는 五運體質의 임상적인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운체질과 유의한 증상과 오장병증과의 관계를 <草窓訣>의 運氣衍論을 통해 비교하여 보았다. 향후에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남성과 세계 각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각각 대상으로 그 연구의 대상 폭을 더 확대하여 五運의 임상 활용가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 뿐만 아니라 五運의 체질적인 특성과 병적인 특성을 구분해 내는 설문지 개발과 체질체

방에 대한 연구 등 폭을 넓혀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參 考 文 獻

1. 김태희, 박영배. 五運六氣辨證의 개괄. 대한한의 진단학회지. 2001;5(2):198-207.
2. 진승희, 최경미, 김태희. 아시아여성의 오운체질별 검사특성 및 증상과의 관계.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0;(1):44-56.
3. 홍원식. 중국의학사.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 80-81, 146-157.
4. 이동주, 최승훈, 안규석, 문준전. 운기론의 본질적 이해와 그 실용화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92;13(1):103-104.
5. 이성숙. 오운육기의 치험례. 대한한의학회지. 1970: 120-124.
6. 이태권, 박영재, 박영배. 한방변증에 있어서 맥박 변이도와 피부전기자율반응의 활용성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4;8(1):185-204.
7. 박영배, 김태희. 운기의학. 서울. 정보사. 2005. 15-26, 135-196.
8. 金信根 編 草窓訣 筆寫本 二冊 藏書閣所藏 驪江出版社 서울 1988 pp3-26.
9. 진승희, 최경미, 박영배. 여성 비만의 유발유형별 일반 증상과 검사 특성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 2004;25(1):173-187.
10. 이봉교, 박영배, 김태희. 한방진단학. 서울. 정보사. 1988. 126-153.
11. 임종원, 박형진, 강명수. 마케팅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2001. 26-30.

12. 노형진. 한글 SPSS 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 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2001. 184-203.
13. 채서일, 김선철, 최수호. Spss Win을 이용한 통계 분석. 서울. 학원사. 2002. 298.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88-89,231,248.
15. 吳崑. 醫方考繩愆. 北景. 中國科學技術出版社. 1996. 하권: 109.
16. 高炳熙. 五臟病症 辨證에 관한 方法論 研究. 서울;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